

●●● 이상진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장

축산업 생존은 유전자원 확보에 달려있다



지난 5월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장으로 취임한 이상진 전 가금과장은 오는 10월에 있는 국내 마라톤 대회에 전부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월 3일 천안지역 마라톤에는 이부장을 비롯하여 축산자원개발부 직원 33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부장이 이처럼 마라톤 애호가로 바뀌고 직원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종축을 다루는 연구자들도 마라톤의 정신, 지구력, 순발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자는 뜻이다. 지난 13일 이부장과 만나 종축 중 가금 분야 중심의 연구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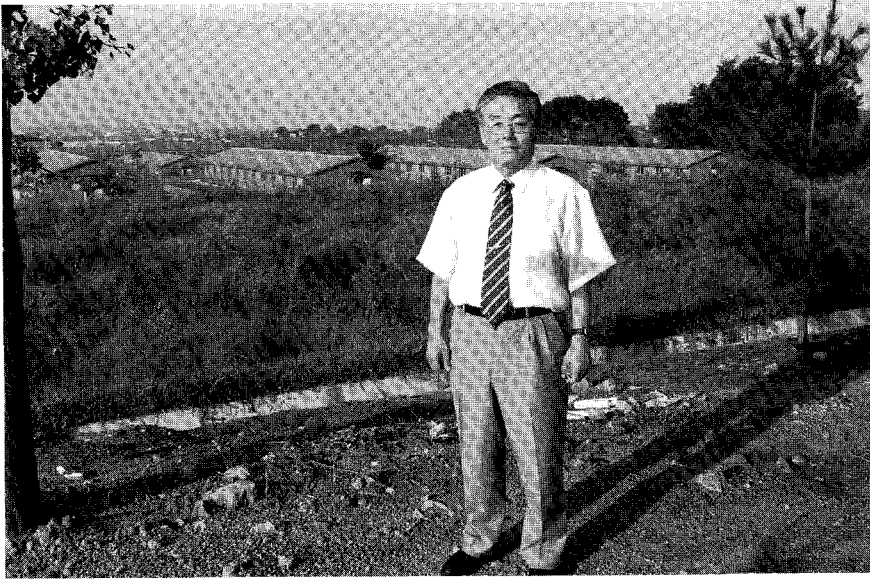
◀이상진 농학박사
전)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장
전)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장
현)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장

산학과 공동연구 강화로 성과 극대화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는 국가단위 가축 개량계획 수립, 평가 및 개량사업을 총괄하고, 가금, 젖소, 돼지, 가금의 개량, 번식, 사양 및

경영에 관한 연구, 고품질 및 기능성 축산물 생산과 수출에 관한 연구, 가축의 질병예방과 진료에 관한 연구, 축산기술 정보전산화 및 서비스 체계에 관한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올해 중점 연구 추진 방향은 양축농가의 소득



▲이상진 부장은 성환에 세계최고 수준의 가금연구동을 신축하였다.(이부장 뒷편, 신축한 가금연구동 전경)

향상과 연계한 실용화 기술 집중 개발, 공동 연구 강화로 취약기술보완 및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전에 있는 가금과와 수원의 조사로 자원과를 성환으로 이전하고, 모든 연구사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워크숍을 통한 새로운 과제 발굴을 독려하고, 과장급은 행정 업무 전반을 다루어 연구원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능직 활성화를 위해 심포지움, 학회 참석을 유도하여 사기진작과 우수한 인재 발굴도 힘쓰고 있다. 그밖에 각종 동호회 활동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가금과 연구동 세계 최고 수준 신축

1956년부터 48년간 반세기 동안 축산자원개발부 가금과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계산동은 질병 위험이 적고, 배수가 잘되어 연구 활동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장점을 가졌다. 계산

동은 지역 명칭이 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대전시의 도시 계획에 의해 연구 시설을 옮기게 되어 너무 아쉽다는 이상진 부장은 대전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어 성환으로 이전하게 되어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아쉬움을 달랠 때, 성환에 마련한 닭

30개 가금연구동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최고의 시설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종우, 종돈과 같이 사육시설이 인접하여 차단방역 시설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진 부장이 가금과 시절 4년 3개월간 과장 직책을 역임하면서 연구의 질 향상과 연구원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썼으며 충분한 연구원이 확보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오리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에도 전담할 수 있는 연구사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기회가 생기면 다른 축종과 비슷하게 가금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 비추었다.

재래닭 국제 품종 등록 추진

이상진 부장은 1992년부터 오봉국 선생님(대한양계협회 고문)과 재래닭 육용화 사업을 시작하여 교배체계를 확립하였고, 지금은 매년 종계 2~3만수를 일반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농가 수

요가 있다면 연중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래닭 육용화 사업의 성공은 닭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상진 부장은 “자유무역시대는 유전자원·종자 전쟁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최종 생산물 경쟁력보다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축종이 유전자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분야에서 축산연구소 노력으로 재래닭 육용화 사업을 성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우리나라 재래닭 순계(현재보유 3,000수)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재래닭 순도가 97% 개량되어 고정되었고, 능력 개량 육용화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므로 축산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재래닭 유전자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부장은 금년 안에 재래닭 5계통 중 3계통(적갈색, 황갈색, 흑색)의 품종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품종등록 명은 영문 표기 원칙, 재래닭과 관련된 지명(지역)표기, 모(母)색 표기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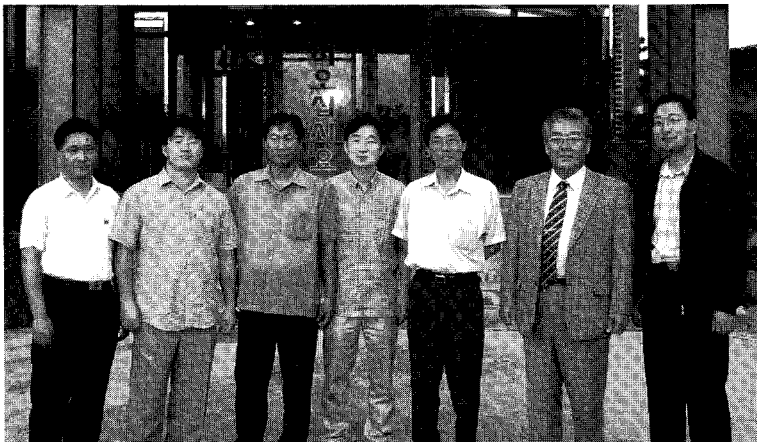
기준하게 된다. 또한 로드 계통(갈색 검용종)도 토착 품종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중순 경 축산연구소 가축개량협의회 닭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품종명을 결정하게 된다.

닭고기·계란 소비량 50% 이상 늘려야..

닭의 사양관리기술을 연구해온 이상진 부장은 양계산물 소비에 누구보다 애착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구구데이(9월9일)와 화이트데이(4월 9일)를 만들어 닭고기 소비를 독려하여 지금은 양계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전국민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계산물이 발전하기 위해선 소비량과 가격이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부장은 현재 계란·닭고기 가격은 30년 전보다 약 3배정도 오른 것은 다른 물가 상승률에 비해 너무 적게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백색육(닭고기)과 계란은 소화율이 96%이상인 우수한 단백질 가치를 보더라도 값싼 식품으로 전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단백질을 함유한 닭고기와 계란이 제값을 받기 위해선 단백질 품질의 우수성을 최대한 소비자에게 홍보하여야 하고, 소비홍보로 1인당 계란 소비량이 40~50% 증가된 250~300개, 닭고기는 1인당 소비량이 15~20kg은 유지되어야 국내 양계산업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리 | 김종준 과장) **양계**



▲이부장은 연구 분위기 조성과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사진은 이상진부장(우에서 두번째)과 축산자원개발부 연구원들)